

# 장기 대란 불가피...공사 착공전 교통대책 서둘러야

## 상반기 대형공사 집중 백운광장 일대 교통대란 해법 있다

올 상반기 하수관거 설치, 백운고가 철거 및 지하차도 건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이 집중된 광주시 남구 백운광장 일대는 광주의 대표적인 교통 요충지다. 이들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현재에도 순환도로를 관통하는 차량과 광주에서 나주를 오가는 차량이 엉키면서 출퇴근 시간에는 늘 차량들이 길게 줄을 지어 2-3차례 신호를 받아야 빠져나갈 수 있는 실정이다.

◇대형공사로 차선 감소 불가피=백운광장은 농성광장으로 빠지는 대남대로와 광주대·나주 방면의 서문대로가 교차하는 곳이며, 이곳의 차량 통행량은 광주지역 교통혼잡 구간 조사에서도 해마다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남대로 하루 평균 교통량은 양방향 합계 7만2974대, 서문대로 하루 평균 교통량 양방향 합계도 6만5365대에 이르는 등 매일 13만8339대의 차량이 백운광장을 통과하고 있다.

또 백운광장 인근과 봉선동 일대는 대광여고, 대성여고, 인성고, 문성중·고교, 동아여고 등 일선 학교가 밀집돼 있어 이곳에서 무더기 공사가 진행되면 학생 통학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현재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교통혼

하루 13만여대 이용 혼잡지역  
광주시 "시공사 선정후에 대책"  
대중교통 이용 시민동참 필요

잡 지역은 제2순환도로의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데, 백운광장의 대규모 공사로 차선 일부가 줄어들거나 상습 교통정체를 빚으면 이들 차량이 우회 도로로 제2순환도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에도 출퇴근 시간마다 정체를 빚고 있는 제2순환도로의 교통 혼잡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때문이다.

올 여름 광주에서 열리는 2019 광주국제수영선수권대회의 경기장 동선이 대부분 제2순환도로이기 때문에 제2순환도로의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백운광장 교통대책 수립해야=백운광장 일대는 또 상습 침수 구간이라는 점도 큰 문제다. 이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큰 비가 내린다면 침수피해뿐 아니라 차량정체를 더욱 키울 우려가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여름, 백운광장에서 봉선동까지

505m 구간에서 시간당 67mm의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도로 침수사태가 빚어지고 차량이 물속에 잠기는 등 큰 피해를 기록했다.

광주시는 현재 백운광장 일대에 대한 종합 교통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통상 대형공사가 진행될 경우, 시공사를 선정해 교통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백운광장 일대에 예정된 공사의 시공사가 대부분 선정되지 않아 제대로 된 교통대책이 없는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백운광장 하수관거 매립사업은 가급적 도로를 점용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주변 아파트 공사 차량의 진·출입로는 대부분 이면도로에 설치해 차량 혼잡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로공사인 농성지하차도의 경우, 4개 차로 중 2차로의 차량 통행을 막은 뒤 남은 2차로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40km로 제한했다.

이처럼 장기차선 감소가 불가피한 지하철공사와 백운고가 철거 공사를 앞두고 있어 광주시의 종합 교통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고, 공사 기간 승용차 2부제와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3일 5.18 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앞에서 '5.18 망언' 의원 제명을 촉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 65% '5·18 망언 의원 제명' 찬성

리얼미터 조사, 반대는 28%

여야 촛불정국 구도로 재편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 운동 모독 망언을 계기로 여야 4당이 한국당을 고립무원으로 몰아가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촛불정국' 구도가 다시 편성돼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의 공동 발의를 서두르는 한편, 문제의 5·18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을 '망언 3인방'으로 묶어 질타했다.

특히 민주당과 평화당은 이날 국회에서 5·18 단체 등과 함께 토론회를 열거나 최고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면서 한국당을 겨냥한 여론전 수위를 점점 높여올렸다. 5·18 유족 등 광주시민 200여명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회의장실과 여야 지도

부와 잇따라 면담하며 한국당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해당 의원들의 의원직 제명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여야 4당 공조를 통해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통과시켜서 역사에 대한 날조·왜곡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익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 지도부의 수습 감지도 않은 수습이 국민의 민심을 사타니 망언 3인방의 사과 감지도 않은 사과가 5·18 유공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당은 5·18 단체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국민경쟁 최고위원 및 5·18 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해 한국당 성

토에 열을 올렸다. 또 14일부터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제명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과 전 당원 리본탈기 운동을 벌이고, 5·18 관련 사진전과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 "광주시민과 유족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테러라고 본다. 패륜 행위가 기도 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한국당 지도부는 해당 의원들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민주당과 야 3당의 공조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날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 ±4.4% 포인트)한 결과,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한 한국당 일부 의원의 제명에 대한 찬성은 64.3%, 반대는 28.1%로 각각 집계됐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망언 3인방 징계 결론 못낸 한국당 오늘 재논의

자유한국당이 14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한국당은 13일 중앙윤리위를 열어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오늘 회의에는 5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논의했다"라며 "회부된 3인에 대한 각각 징계여부 및 수위에 대해 위원들 간 이견이 존재해 내일 오전 7시30분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일 오전 9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있으며 비대위 회의 전에 윤리

위 결정이 통보되면 비대위에서 의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윤리위 통보가 지연되도 비대위원들께 대기를 부탁드려 윤리위 결정 이후에 비대위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윤리위가 '당원권 정치' 이상의 징계를 결정하면 2·27 전당대회를 맞아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각각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후보 자격을 잃는다. /임동욱 기자 tuim@

## 걷기는 가장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인간행위



김은영의 '그림 생각'

(256) 걷는 사람

요즘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닌다. 최근 다른 때에 비해 모처럼 시간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걸으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걷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걷다보니 걷기를 예찬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간다. 한 영화배우가 퍼낸 걷는 사람에 대한 책도 반갑게 읽어보고, 예술·문화평론가이자 사상가인 리베카 솔닛의 '걷기의 인문학'을 발견하곤 그 책에 빠지기도 했다.

걷기를 '가장 철학적이고 예술적이고 혁명적인 인간의 행위'라 정의하고 있는 저자는 이 책에서 보행을 모티브로 한 통사를 집대성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무에서 내려와 땅 위를 걸기 시작하면서부터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주

랑을 걸었던 길, 기독교 순례자들의 십자가의 길에 이어 낭만주의자들이 걸었던 자연의 길과 모더니스트들이 즐겨 돌아다녔던 도시의 길을 살피고, 현대인은 러닝 머신에서 걷는다는 내용까지 흥미진진하다. 리베카 솔닛의 걷기를 향한 지적 여정이 너무나도 눈부셔서 이제는 걸으면서도 그냥 걸지 못하고 생각이 조금 복잡해질 것 같기는 하다.

우리 시대에 '걷는 사람'을 철학적이고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우리에게 충격적인 인상을 남긴 작품으로 금방이라도 바스라질 것처럼 막대기같이 빠란 양상한 사람이 큰 보폭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알베르토 자코메티(1901-1966)의 '걸어가는 사람'(1960년 작)을 꼽고 싶다. 제2차 세계대전을 겪는 등 당시 불안한 시대 상황에서 인간의 고독과 번민이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자코메티는 자신이 품고 있는 인간 실존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철사와 같이 가늘고 긴 인간으로 표현했다. 보통의 조각가들이 인간의 참된 모습을 조각상에 담기 위해 존재 그 자체를 조각한데 비해 자코메티는 상황 속에 놓인 순간을 조각하



자코메티 작 '걸어가는 사람'

기 위해 자기의 시선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버린 것이다.

자코메티의 작품은 사르트르가 예술론을 쓰기도 해 더 유명하다.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자신의 실존철학이 자코메티의 작품에서 시각화되고 있음을 보고 '절대의 추구'라 찬탄하기도 했다. <미술사박사>

## 한국 형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땅+건물+태양광 = 2년6개월(현금투자회수가능)  
선로걱정없는 한국형



###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암 신북면 잔여분 5기
- 영광 흥농읍 잔여분 3기

2019년 10월 준공예정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TWIN STEEL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